



# 전북도 '탄소' 넘어 '방산'...490억 혁신클러스터 유치

### 방사청 공모 선정 국비 245억 확보 5년간 490억원 투입 본격 육성 탄소복합재 기반 방산생태계 구축 새만금 연계 첨단무기 실증 추진

전북도가 전주시와 함께 2026년 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사실상 미래 100년 먹거리로 꼽히는 방위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과 방위산업을 연결해 중소·벤처기업의 방산시장 진입을 돕고, 지역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키워 첨단 국방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은 올 하반기부터 5년간 총 490억원(국비 245억 원, 지방비 245억 원)을 들여 탄소복합재 중심의 국방 첨단복합소재 분야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갖춘다. 이를 발판으로 국내 유일의 소재·부품 공급망 거점으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전주권을 중심으로 소재

를 개발하고 부품에 적용해 신뢰성을 평가한 뒤, 새만금에서 실증하는 지역 연계 구조가 특징이다. 전주권의 탄소섬유·내열소재 기업이 개발한 고강도 경량·내열 소재를 부품으로 검증하고, 드론·기동로봇·무인수상정 등 완성 제품은 새만금 실증테스트베드에서 점검한다.

전북도는 탄소복합재를 기반으로 한 내열·경량·특수기능 소재를 방위산업에 접목하고 지역 기업의 방산 진입을 돕는 원스톱 지원체계와 거버넌스를 갖춰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완제품의 기획부터 설계, 연구개발, 시험·평가, 조달까지 전 주기를 묶은 통합 체계를 만들어 첨단 방위산업 공급기지로서의 위상도 다진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방 첨단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 및 실증 지원 ▲방산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방산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방산 수출 지원 등이다.

최근 K2, K9, 천궁 등 K-방산의 인기로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소재·부품의 국산화는 더디고, 국방핵심 소재의 79%를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방 첨단소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일을 국가적 과제로 보고, 무기체계에 쓰이는 외국산 소재를 국산으로 바꾸는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기반 확충에 힘써 왔다.

도는 이러한 공급망 내재화 정책에 발맞춰 최대 강점인 탄소 기반 첨단복합소재 산업과 새만금 실증 기반을 앞세워 사업의 당위성을 부각했고, 정부가 이를 인정하면서 공모에 최종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전북의 주력인 탄소산업은 전방산업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선정으로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방위산업으로 확장하는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도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방산시장 진입과 기술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주 국가산업단지에서 들어서는 '전북전주 방산혁신중합지원센터'를 거점삼아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수요를 바탕으로 한 국

방 첨단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플랫폼을 통해 지역 기업과 혁신기관의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방산 진출 토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방위산업과 기존 주력산업을 잇는 작업도 본격화한다.

탄소융복합소재는 우주항공용 고온·극한 소재 분야에, 수소연료전지와 이차전지는 무기체계 전동화를 위한 전원체계 분야에 적용해 미래 국방 수요에 대응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투자와 피지컬 AI 전략 PoC 사업 등과 손잡고 새만금에 모빌리티, 무인로봇, 유·무인 복합체계 같은 첨단 무기체계 실증 기반을 마련해 도내 방산 저변도 넓혀갈 방침이다.

전북은 이번 5년 사업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생태계의 밑그림을 그린 뒤, 산업을 키울 소부장 특화단지, 조적차 기술 확보와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도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전략을 통해 방산 생태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 정청래 거취 고심...민주당 "기다려줘야"

### 지방선거 책임론에 사퇴 압박 박지원 "지도부 총사퇴" 촉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결과' 등과 친명계의 퇴진요구에 대해서 퇴진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청래대표가)당내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경청하고 속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히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맞다"고 전했다.

이어 "목적지로 가는 길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희망 사항도 다양할 수 있다"며 청와대와 정 대표간의 입장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런 부분은 열띤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열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정 대표를 거들었다.

정 대표의 퇴진 주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으나 주요 쟁점 선거구였던 부산북구와 경기평택을 보궐선거에서 패한데 이어 승리가 당연시 되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석패하면서 당내외에서 나오기 시작되었다.

특히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겨야할 곳에서 졌다면 성공이 아니다'라는 평가에 대해 '국민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짧다'고 직접 반격하면서 사퇴론은 더욱 강력해졌다.

실제 원로인 박지원 의원은 "우리



정청래 대표

가 산술적으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 등 정치적 패배를 해서 허탈한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뜻을 알아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책임지고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촉구한다"며 정 대표의 사퇴와 당대표 불출마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검찰 폐지와 관련,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반해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인정 불가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으면서 당정간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논의 없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표가 관련 메시지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한 소통이 안 됐던 것 같다"며 "향후 원내지도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정 대표의 이같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은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친명 진영에서는 더욱 강하게 정 대표의 퇴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목기자

## 김제 새만금 스마트원예단지 선정...국비 45억 확보

### 농식품부 기반조성사업 최종 선정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에 조성

전북도는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5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은 대규모 스마트팜 운영에 꼭 필요한 내부 도로와 용·배수, 전기 인입, 오페수처리시설 등 부지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원예단지) 일원에 부지면적 10ha, 온실 면적 7ha 규모의 스마트원예 단지를 조성한다. 총사업비 65억 원(국비 45억·도비 6억·군비 14억)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공모는 전북 김제와 전남 장흥, 경남 거창 등 3개 시군이 신청했다.

서류·발표·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는데 사업비는 연차별 투입 비율(연부율)에 따라 2026년 10%, 2027년 30%, 2028년 60%로 나눠 집행되며, 첫 해인 올해는 6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분담한다.

이에 앞서 김제시는 올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 일원이 지구지정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6공구 내 기존 단지를 육성지구로 지정받아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 스타트업 단지 ▲세대통합형 스마트농업단지(스마트APC·가공센터) 등을 각각 조성해 스마트농업 클러스터로 키워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6공구는 첨단 원예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어, 이번 기반조성을 계기로 스마트팜 입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새만금이 첨단 농생명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



예정지 위치도

<사진=전북도>

김하는 데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농과 스마트농업 기업의 유입을 앞당기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달부터 공유재산 심의와 간담회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9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시설기에 들어간다. 이어 2027년 9월 기반조성 공사에 착공해 2028년 12월 준

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공모 선정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미래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해 새만금을 첨단 농업과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농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윤준병, 정읍·고창 학교환경 개선 특교 10억 확보

### 정읍 정주고·고창북고 지원 체육관·기숙사 등 인프라 개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정읍·고창 교육현장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총 10억 4,400만 원의 교육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특별교부금은 △정읍 정주고등학교의 본관 및 체육관 바닥 교체 사업에 9억 1,800만 원, △고창북고 기숙사 및 체육

관 옥상 방수 1억 2,6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정읍과 고창 지역 고등학교의 낙후된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전액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

특히, 정읍 정주고의 경우 바닥 자체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의 통행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체육 활동 중 부상 위험이 높았으나, 이번 예산 확보로 친환경적이고

특히, 정읍 정주고의 경우 바닥 자체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의 통행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체육 활동 중 부상 위험이 높았으나, 이번 예산 확보로 친환경적이고

안정한 바닥 자재로 전면 교체되어 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학습 공간을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북고 역시 기숙사와 체육관 옥상

의 방수층이 균열·노후화되면서 누수 현상이 발생해 학생들의 주거 시설 환

경과 교육 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으나, 이번 예산 확보로 건물 내부 손상을 막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위생적이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김영목기자

## 우리건물 화재예방 안내



콘센트에 다양한 플러그 사용 금지



온열기구 미사용시 전원 OFF



전자기기에 물 닿지 않게 하기



콘센트 옆 화기배치 금지

# ‘전주시 공동체 발대식’ 개최

## 총 41개 공동체 전주 곳곳서 소통·협력 나눔 사업 추진

전주시가 따뜻한 지역사회 위한 시민 공동체 지원사업 등의 성공적인 추진에 지원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2일 41개 공동체 대표 및 관계자 등과 함께 ‘2026년 전주시 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전주시 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또 공동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교부·신청·집행·정산 등 공동체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회계 및 전산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 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공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2일 41개 공동체 대표 및 관계자 등과 함께 ‘2026년 전주시 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전주시>

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마을공동체 분야에는 총 14개 동이 선정돼 각 동의 주요한 마을의제

문제 해결 △교육 △생활문화·공예 △환경·조경 △나눔 봉사 등 분야에서 활동할 총 27개 공동체가 선정됐다.

시는 이들 41개 공동체에 총 2억 2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시는 이날 중 각 공동체로부터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으로 각 공동체들이 한 해 동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와 함께 공동체들의 사업 추진을 도울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를 공개 모집했다.

이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총 65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12일까지 사전심사와 전문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총 41개 공동체를 확정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 데시앙열린어린이집 ‘이웃사랑’ 실천

플리마켓 수익금 152만원 기부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데시앙열린어린이집 아동들이 지난 12일 전주시복지재단에 성금 152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지난달 28일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플리마켓 운영으로 마련됐다.

원아들은 물품 판매와 나눔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자원순환의 의미를 배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의 가치를 체험했다.

데시앙열린어린이집은 해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에

게 환경보호와 나눔의 가치를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기부로 전주시복지재단 ‘2026년 백만천사 25호’에 이름을 올렸다.

또 어린이집은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전주시복지재단의 백만천사 나눔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시앙열린어린이집의 나눔행사에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1년에 1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백만천사 캠페인’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전북경찰 ‘발빛 교통안전 프로젝트’ 추진

## 신발 부착형 LED 안전등 보급

전북경찰청이 전국 최초 신발 부착형인 LED 안전등 활용에 도내 고령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추진한다.

전북경찰청 이재영 청장은 지난 10일 ‘발빛 교통안전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발빛 교통안전 프로젝트’는 LED 안전등으로서 신발에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다.

야간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일일이기도 하다.

관련해 경찰은 앞서 “발빛 ON, 사고 OFF” 슬로건을 활용한 새벽길 보행자가 많은 △중교시설 △경로당 △노인복지



관 등을 방문하며 홍보했다. 민들에게 ‘발빛 교통안전 프로젝트’를 인지시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SNS에 업로드 후 해시태그(#발빛교통안전)로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인증된 도시민들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야간 교통사고 예방차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통안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4년 174에서 151명으로 감소했지만 이 중 고령사망자 비율은 57.4%에서 60.9% 증가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중 고령자 비율은 전체 각각 62.5%와 83.3% 추세로 고령자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병원회 학술세미나 성료

임시이사회 의뢰서비스 향상 논의

전북병원회 신총신 회장은 “제55차 전북병원회 임시이사회 및 학술세미나를 지난 11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현재 신총신 전주예수병원장이 전북병원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세미나에는 도내 회원병원 소속 임직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신 예수병원장은 이날 “의료의 체계화, 병원 경영의 선진화” 주제를 내걸며 도내 보건의료계 소통과 발전을 도모했다.

이번 행사에서 이사장과 이사 및 신총신 회장 그리고 임직원들은 급변하는 보건으로 환경 속에서 도내 병원들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회원병원 간의 긴밀한 유대와 상생 발전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날 학술세미나 앞서 ‘임시이사회’가 문을 열고 현재의 지역 보건의료계 핵심과제를 짚어보며 수준 높

은 지역의료서비스 방안들과 제19대 전북병원회 회장 선출 등을 논의했다.

학술세미나 1부에서는 임상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최신 의학 지견이 공유됐다.

이 자리에는 △신장내과 선인오 과장의 신대체 요법의 최최신 윤리적 쟁점 △이비인후과 한주희 과장의 ‘Hear Better, Care Smarter: 보건의료인 위한 난청 케어 매뉴얼’ 등 전문성 높은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 후 시상식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1명) △전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장 감사장(1명) △대한병원협회회장상(5명) △대한중소병원회장상(2명) △전북병원회회장상(10명) △전북특별자치도사회장상(1명) 등 총 20명에게 표창이 수여되며 최원진 현장에서 땀 흘리는 보건의료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우주로1216 ‘독립출판 청소년 작가’ 탄생

##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트윈세대 독립출판 제작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내 트윈세대(12세~16세) 전용 문화공간인 ‘우주로1216’에서 전주시청 청소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진솔한 고백이 담긴 10권의 특별한 책이 세상에 나왔다.

전주시는 전주시청 12세부터 16세까

지의 청소년 10명이 참여해 기획과 집필, 편집, 디자인 등 독립출판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한 ‘트윈세대 독립출판 제작’ 과정을 운영했다.

청소년들은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출판의 개념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과 취향을 마주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편집 및 디자인 과정을 거쳐 6주

간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의 결과물로 자신만의 출판 시안 한 권을 완성했다.

10명의 청소년은 초등학교 6명과 중학생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업 △로맨스 △종교 △음악 △미스터리 등 다양한 주제에 나라는 색깔을 더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을 만들어냈다.

완성된 작품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우주로1216’에 비치될 예정으로, ‘우주

로1216’을 이용하는 트윈세대 이용자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우주로1216’은 전국 최초의 트윈세대(12~16세) 전용 공간으로, 운영시간은 평일(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토·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정소민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위험물 운반차량 검사 실시

## 도로 위 안전관리 강화

전주완산소방서가 위험물 운송 과정에 따르는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검사를 이어간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유로는 위험물 운송·운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등에 따른 것으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검사는 지난 8



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며 사람과 차가 많이 다니는 변화한 거리에서 펼쳐

진다.

관련해 소방서는 관련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 권한이 있다.

특히 검사에서 완산소방서 박덕규 서장은 위험물운송차 및 위험물운반차 자격 취득 여부와 실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며 위험물 운반용기의 고정 상태와 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이동탱크저장소 및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운반차량으로

진행된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위험물 관계인들은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며 “소방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험물은 작은 부주의에도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져 운송 단계에서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영태 기자

## 새만금청 현대차그룹 핵심 기반시설 점검

“기업 투자 뒷받침할 기반시설, 관계기관과 함께 속도 높인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항 입찰도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신항 등 주요 기반시설(SOC) 사업 현황을 방문해 추진 상황 등을 지난 12일 점검했다.

현장점검은 현대차그룹의 로봇·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첨단산업 투자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 내 교통·물류 기반시설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지원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성요 청장은 추진 중인 지역간 연결도로 현황을 방문해 주요 공정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2030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내부용지와 동서도로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로서, 항후 수변도시·산업단지·관광레저용지 등 주요 개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새만금 신공항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현황도 함께 살펴보고 항만·공항·철도가 연계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문성요 청장은 해수부가 추진 중인 새만금 신항 현황을 찾아 “올해 2선 식 개항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항후 항만 운영과 배후 교통망 간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청 배드민턴팀 시민 대상 재능 기부

## 생활체육 활성화 앞장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팀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배드민턴 저변 확대 위한 동호인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간다.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은 지난 13일 오후 3시 우산체육관에서 전주시청 배드민

턴 동호회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했다.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은 꾸준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전국대회 남자복식 우승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실업팀으로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선수들은 전국대회에서 쌓은 경

기 경험과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호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기술 지도를 제공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스트로크와 수비·공격 전환, 복식 경기 운영 방법 등 실전 중심의 원포인트 레슨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배드민턴을 비롯해 태권도, 수영, 사이클

등 총 4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다. 각 종목별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용현 전주시청 배드민턴팀 감독은 “전국대회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능기부 활동을 지속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TP “지방소멸 막고 연고사업 기업 키운다”

## 김제·남원·장수 기업 대상 시·군 산업육성 사업 3차 모집

전북TP가 '2026년 시군연구고산업 육성사업'의 3차 참여기업 모집에 나선다. 이번 3차 공고는 앞서 진행된 1, 2차 모집에 이어 도내 연고 산업 분야 지원 사업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유망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3차 모집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자치도 그리고 도내 3개 시·군(김제시, 남원시, 장수군)이 함께한다. 목적으로는 지역 연고 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 창출 유망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해당 3개

시·군 관내에 △본사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중 최소 1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이다. 각 지자체의 중점 연고 산업인 △김제시(특장차) △남원시(그린바이오) △장수군(레드푸드 및 스마트 농업) 분야 전·후방 연고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 개발 컨설팅 △시제품 제작 △마케팅 △시협분석 및 인증 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해당 3개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최종 선정 시 기업당 연간 최대 5000만원 상당 맞춤형 밀착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 접수 없이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세부적인 지원 요건과 공고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공식 홈페이지 또는 RMS 사이트 그리고 각 시·군별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이 지난 12일 관내 취약계층을 찾아다니며 양파장아찌 나눔활동을 펼쳤다. <사진=전북농협>

## 전북관내 농가 위한 전북농협 “착한소비”

취약층에 양파장아찌 전달 남는 양파장아찌를 담가 전북관내 취약계층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날 농심전심 범농협 활동 중심에는 “최근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과 농산물 활용 소비촉진은 취약계층들에게 상생의 의미”를 더한것이 핵심이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농가 일손돕기부터 착한소비-반찬나눔까지 농심과 전심을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고추도, 농주모와 함께하는 나눔 확대와 우리농산물 착한소비 확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 임직원은 △양파 산농협 농가주부모임 △전북농협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가하며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일손돕기 그리고 음식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총 300여통이

# 전기안전공사, 미래형 전기안전 기술개발 본격화

## 디지털 기반 관리 체계 구축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재해 위험을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 착수했다.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관한 국가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4년간 국비 총 220억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확보했다. 사업은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원격점검 기술을 활용해 저압부터 특고압까지 전기설비의 운전·과전류·과열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AI 기반 위험예측 알고리즘, 전기설비 데이터 송수신 장치, 성능평가 및 안전진단 기술 등을 개발해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 현장 방문 중심의 사후 대응형 점검 체계에서 벗어나, 상시 모니터링 기반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실시간 감시와 원격 진단이 가능한 디지털 안전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현장 실증과 운영 인프라 조성을 통해 미래형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남화영 사장은 “전기안전관리 분야에도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이어 “AI 기반 원격점검 기술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래형 전기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 농진청, 빵용 밀 신제품 ‘백경’ 수확 연시회

## 수확 현장 참관

최근 정부는 국산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8%까지 높일 방침을 정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를 뒷받침할 고품질 국산 밀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참조은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서 빵용 밀 신제품 '백경' 수확 연시회를 개최한다. '백경' 밀을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선

보이는 이번 행사에는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을 비롯해 가공업체,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백경' 품종 특성을 듣고, 김제 평야에서 범용 클러스터 콤바인으로 수확하는 국산 밀 수확 현장을 참관한다. 이어 '백경'으로 만든 식빵 등 빵류 제품을 시식하며 수입 밀 대체 가능성을 평가한다. 2024년 개발한 '백경'은 단백질 함량이 12.9%로, 빵 만들기에 적합한 수준이다.

특히 빵을 만들었을 때 부피가 크고 비용적이 넓어, 기존 품종에 비해 제빵 적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백경'은 추위와 쓰러짐에 강하고, 붉은곰팡이병에도 저항성을 지녀 현재 재배 중인 다른 빵용 품종보다 생육 안정성이 우수하다. 수량도 헥타르(ha)당 5.3톤으로, 기존 품종 '금강'과 '황금알'보다 각각 15%, 13% 많아 이모작에도 적합하다. 농촌진흥청은 '백경'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원화한 '밀 벨리화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산업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산 밀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식량 자급 체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맥류작물과 이정희 과장은 “국산 밀 자급률 향상을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소비자와 가공업체 기호에 맞는 맞춤형 품종을 개발하고, 현장과 산업을 연결해 국산 밀 산업이 시장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이중저수지 환경정화

패적인 수변공간 조성 사 관리시설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만드는 데 힘을 보탤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11일 전주 이중저수지 일원에서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본부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저수지 주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산책로와 수변 공간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이중저수지는 과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된 저수지로, 현재는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위해 찾는 지역 수변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전북지역본부는 이번 활동을 통해 공

# 전북 고용률 64.3%... 취업자 1년 새 7천명 ↑

## 실업자 4천명 감소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용지표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림어업과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증가해 산업별 양극화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11일 발표한 '2026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도내 취업자는 99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명(0.7%) 증가했다. 고용률은 64.3%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으며,

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2%로 0.3%포인트 올랐다. 실업 상황도 개선됐다. 실업자는 2만 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천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여성 실업자는 7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4.4% 감소해 전체 실업률 하락을 견인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가 44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3만7천명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업도 7만6천명으로 1만2천명 늘어 19.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기·

운수·통신·금융업 역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전북의 전통 주력산업인 농림어업과 제조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13만명으로 1만8천명(-12.4%) 감소했고, 제조업 취업자도 12만2천명으로 1만4천명(-10.5%) 줄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역시 1만1천명 감소하며 내수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반영했다.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우려도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는 69만8천명으로 증가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받는 상용근로자는 48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8천명 감소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18만

7천명으로 2만8천명 증가해 증가폭이 17.6%에 달했다. 또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6만7천명으로 14.9% 늘어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4% 감소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37.5시간으로 1년 전보다 1시간 줄어 들었다. 전문가들은 “전북의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제조업과 농림어업의 고용 감소, 상용직 축소와 임시직 확대는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며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 건단련·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건설 간담회

소 회장,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지역건설업체 참여 요청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새만금 사업의 신속 추진과 지역 숙원 사업들이 국가건설계획에 조속히 반영되고 필요한 국가예산이 철저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역할을 집중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전북 지역내 10개 건설관련 단체가 2007년부터 가입돼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간담회는 김윤덕 장관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공사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현황 공유 및 지역건설장업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윤덕 장관은 참여 건설단체들의 건의에 공감함을 표하며 “전북 건설산업은

# 바이오진흥원, 농식품기업 애로기술 실증연구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원광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식품기업 애로기술 실증연구'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운영과 연계해 발굴된 도내 농식품기업의 기술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기업 현장에 적용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진흥원은 과제

총괄기관으로서 기업 애로기술 발굴, 기술 보유자 매칭, 기술이전 연계 및 실증연구 지원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한다. 2026년도 지원기업은 △(유)제이엘브리치 △(주)라라스팜 △순탄지발효연구소 △(유)버섯마루 4개사이며, 기업별 기술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실증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유)제이엘브리치는 한국 고유 식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해 온 경험을 바탕

으로 액상 스틱형 건강지향 음료를 개발하고, 두부류 제품 생산기업인 △(주)라라스팜은 대두 유래 부산물을 활용한 식물성 단백질 웨이크 개발에 나선다. 또한, 쌀 발효음료와 발효청을 제조하는 △순탄지발효연구소는 국산 두류 기반 식물성 발효 스프레드를 개발하며, 버섯 전문기업인 △(유)버섯마루는 버섯 신규주의 분지제배 기술을 확보해 제품화와 농가 보급 기반을 마련

할 계획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과제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도내 기업의 제품 개발과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지원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내 농식품기업의 기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실증연구와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천호성 인수위, 전문위원 32명 윤곽

## 현장 교원 80% 배정에도 교원단체 사전소통 전문위원 논란...결원 인수위원 국주영은 위촉

천호성 제20대 전북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전문위원 32명의 명단이 지난 12일 알려졌다. 확인된 명단에 따르면 교장 13명, 교사 13명, 교감 2명, 수석교사 2명 등 현장 교

원이 전체 인원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1명과 전주시유치원연합회장 1명도 전문위원으로 포함됐다. 지역 교원단체들은 이 같은 인수위 및 전문위원 구성 과정에서 당선인 측과의 사전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특정 직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의식이 초기 정책 설계 과정에 정확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함께 살아나는 방향으로 전문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수위나 전문위원 구성 시 교원단체와의 협의가 필수 요건은 아니며, 전교조 등 어떤 단체의 추천도 없이 자체 인력풀로만 위원회를 꾸렸다"며 "추가 위원 위촉이나 향후 전문위원 인선에서도 단체와 소통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문 교육감과 달리 평교사 1명을 인수위원에 포함했으나 이 역시 주요

교원 3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인물"이라며 "교원단체와는 추후 대화와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음주운전 논란으로 출범 첫날 자진 사퇴한 인수위원의 공석에는 국주영은 전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이 이날 새롭게 위촉됐다. 인수위는 의회 운영과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한 국 전 의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11명으로 축소됐던 위원진 결원을 채웠다고 발표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시, 이흥재 시립미술관 명예관장에 감사패

지역 문화예술 발전 이바지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공헌했다. 정읍시가 지난 11일 시장실에서 대표적으로 2019년 '100년의 기다림: 한국 근현대 명화' 전시를 이어 2021년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 정읍에서 사랑에 빠졌다' 등 다채로운 기획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나아가 2025년에 열린 개관 10주년 특별기획전 '다시(RE) - 삶 속의 초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 큰 성과를 냈다. 이흥재 관장은 미술관 문을 연 2015년에 명예관장으로 위촉됐다. 이후 11년 동안 공립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재임 기간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해서 자문을 제공한 것은 물론 소장품 수집과 관리 분야에서도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며 미술관의 튼튼한 기반을 다졌다. 특히 수준 높은 대형 전시를 유치해 시립미술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 전북대·퍼듀대, 글로벌 공동연구 거점 'JPRI'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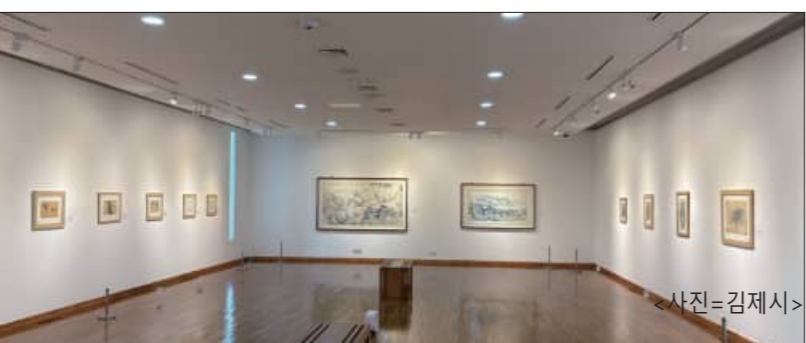
## 피지컬 AI 기반 미래 산업 공동 연구

전북대학교는 지난 12일 교내 인터내셔널센터에서 미국 퍼듀대학교와 공동 설립한 공동연구거점(JPRI)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양 대학 연구진은 이번 행사에서 피지컬 AI(Physical AI)와 미래 모빌리티, 첨단 국방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연구비전을 공유했다. 컨퍼런스에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디미트리오스 페틀리스 퍼듀대 수석부총장 등 양측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전북대학교> 특히 퍼듀대 교수진은 전북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글로벌 선도대학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적·학문적 개선 방향을 자문했다. 양 대학은 이번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국제 공동연구 과제 발굴과 연구자 교류, 대학원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JPRI는 향후 전북대 특성화 융합연구원에 참여하고 주요 기업과의 산학공동연구를 확대해 국가 대형 연구과제 유치에 직접 나설 방침이다. 양오봉 총장은 "JPRI를 통해 브랜드 단과대학과 AI 연구거점 구축을 연계하고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김제 벽천미술관, 나상목 화백 작품 '한 공간에'

김제시 벽천미술관은 나상목 화백의 예술 세계와 치열한 작업 과정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기획전시회를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철저한 관찰을 통해 대상의 생명력을 포착한 나상목 화백의 스케치와 완성작을 한 공간에 전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을 통해 나상목 화백이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했는지, 그 섬세한 관찰력과 예술

적 고민의 흔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결과물로서의 '명작'만을 조명하던 기존의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예술가의 시선과 창작의 과정 자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단순한 선이 완결된 명작으로 피어나기까지 작가가 쏟은 숨은 노력과 감동적인 창작 과정을 많은 시민들이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소원을 들어주는 개양할미' 기획전시

부안군문화재단은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안역사문화관 기획전시실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개양할미'를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부안을 대표하는 설화인 '개양할미'를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로, 부안 바다를 지켜온 거대한 수호신으로 전해지는 개양할미 이야기를 다양한 전시 콘텐츠로 재구성해 선보인다. 전시는 '거인', '수호신', '소원'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바닷물이 발목밖에 닿지 않을 만큼 거대한 몸집을 가진 개양할미가 서해 바다를 걸어 다니며 뱃길을 살피는 이야기부터 계란여 설화와 여덟 딸 이야기, 수성당에 전해지는 신앙 이야기 등 부안 곳곳에 전해 내려오는 개양할미 설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부안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진=부안군문화재단>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부안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고, 지역 설화가 지닌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여행사 팸투어 성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전북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여행사 팸투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운영된 4색이음 관광상품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관광자원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향후 상품 구성과 판매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정은 전주와 익산·완주·장수·남원 일대의 로컬 체험 관광지인과 자연휴양 관광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재단과 여행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11일에는 전주 한옥마을 인근의 △'모주체험 여'를 시작으로 완주 △'드림 들릴림림'과 △'봉강요' △익산 '서동림'과 △'봄과 로라의 치유농장' 등을 방문했다. 이들 방문지는 전통주 체험과 도예 체험, 농장 투어, 농장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치유형 팸크닉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12일에는 △장수 와룡자연휴양림과 △장안산 생태길 △남원 피오리움 등을 찾아 자연휴양 및 체험형 관광코스 구성 가능성을 살폈다. 재단은 이들 자원을 기존 관광개발사업 대상지와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 간 관광객의 체류와 이동을 유도하는 여행 코스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단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여행사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광객 수요와 시장성을 반영해 전북의 로컬 체험 관광 자원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해 상품화 기반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여행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전북의 체험·휴양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건강한 생활 습관 5가지

1. 외출 후 돌아와서 10초 이상 손 씻기
2. 3가지 이상 음식을 골고루 먹기
3. 청결 유지 하기
4. 주 2회 이상 1회에 20분이상 규칙적인운동
5. 저녁 9시~10시 사이에 규칙적인 숙면



## 정읍시 '구절초 꽃축제' 판매장 운영자 공개 모집

정읍시가 오는 10월 개막하는 '제19회 구절초 꽃축제'를 앞두고 방문객에게 민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총 43곳의 판매장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구절초 꽃축제는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일원에서 열린다. 시는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역량 있는 상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먹거리의 위생 상태와 질을 높이고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음식의 맛과 품질을 평가하는 품평회를 열어 운영자를 최종적으로 엄선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구절초 꽃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와 정직한 서비스"라며 "우리 지역의 우수한 맛과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판매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드론·측량 진로 체험으로 미래 인재 키운다

익산시가 미래 공간정보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2일 성일고등학교에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와 함께 '미래를 촉망하다! 찾아가는 드론·측량 진로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GPS 측량기와 토탑스테이션 등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측량장비를 살펴보고 장비의 원리와 활용 방법을 배웠다.

특히 익산시 지적지 공무원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 측량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측량과 지적, 드론, 공간정보 분야의 직업 세계를 소개하고 진로 정보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명을 들으며 관련 분야 진출 과정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영상으로만 접하던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신천지 자원봉사단 군산 현충 시설 정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신천지 자원봉사단 군산지부(지부장 이한빛·이하 군산지부)와 익산지부(지부장 정재성)가 지난 11일 군산 은파호수공원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비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사를 전하는 봉사를 펼쳤다.

이날 군산·익산지부는 6·25전쟁 참전 기념비에서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추모식을 거행하고 주변 현충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6·25전쟁 참전 기념비 △월남 참전기념탑 △호국무공수훈자 공적비 등 총 3곳의 현충 시설의 잡초 제거, 비석 닦기, 물청소 등을 전개해 오랜 세월 묵은 때를 씻어냈다.

이 모습을 본 6·25참전유공자회 군산지회 박 모(91) 회원은 "기념비가 세워진 이후 이렇게 시원하게 물청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젊은 봉사자들이 마음을 다해 비석을 닦아주는 모습에 큰 감사를 느꼈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한빛 지부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희생들이 있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명예를 드높이는 보훈 문화가 확산하도록 예우와 소정의 기회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 군산시 "민선 9기 시정의 새출발"

## 인수TF팀, 본격 활동 행정 공백 없는 안정적 시정 운영 기반 구축

민선 9기 군산시장직 인수TF팀(총괄팀장 :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이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시작으로, 민선 9기 성공적인 출범과 시정 운영 방향 구체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보고회는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의 시정 철학과 정책 구상을 공유하고, 민선 9기의 안정적인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인수TF팀 활동의 핵심 과정으로, 단순한 업무보고를 넘어 부서별 주요 현안과 핵심 사업을 공유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시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인수TF팀 내 혁신행정, 경제산업, 문화관광, 시민복지, 안전건설 5개 분과 및 정책자문단 위원 20여명이 참



<사진=군산시>

석해, 각 부서의 주요 사업 현황과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민선 9기 시정 방향과 연계한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출범과 동시에 즉각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시정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살펴보면, 각 분야 전문가인 분과

위원과 정책자문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인수 TF팀은 활동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민선 9기 정책 로드맵과 핵심 정책과제를 민선 9기 출범이후 우선 추진사업으로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시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 익산시, 우기철 침수 예방 '총력'

## 배수 취약지역 빗물받이 집중 정비

익산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 취약지역 정비에 나서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2일 송학동 일원에서 지역 단체 및 주민 100여 명과 함께 빗물받이 집중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비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익산시새마을회,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해 배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빗물받이 안팎에 쌓인 낙엽과 토사, 생활쓰레기 등 퇴적물을 집중 수거하고 배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했다. 또한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정비 사업 '우리 동네 새단장'과 연계해 추진돼 의미를 더했다. 주민과 지역사회 기관·단체가

함께 생활권 주변 취약지역을 정비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다.

시는 우기철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과 관리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빗물받이와 배수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배수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월 최대 110만 원 지급

군산시가 농업 분야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독립영농 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영농활동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농업인 또는 영농 창업 준비 중인 예비 농업인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농업e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등을 거

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결과는 오는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과 함께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을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5% 금리,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상기 농업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정읍시,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 나선다

## 벼 보험 19일까지 접수

정읍시가 올여름 예상되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 재해에 대비해 71개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 90%를 지원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여름철 기후 전망을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잦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보됐다.

시는 이러한 기상이변으로 농업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고자 선제적으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총 71개 농작물 품목이다. 시는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 가입비의 90%를 지원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루쌀 상품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사진=정읍시>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6월은 벼 보험 집중 가입 기간으로 지정돼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대학생 행정인턴 150명 모집

44개 부서·4개 기관서 근무

익산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2026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참여자 150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대학생 행정인턴은 방학 기간 대학생들에게 시정과 공공기관의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매년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으며, 지난 겨울방학에는 152명 모집에 567명이 신청해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 자격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휴학생도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익산시 누리집 '익산소식'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익산청년시정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다음 달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행정복지센터 등 시청 44개 부서와 국립익산박물관을 비롯한 4개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시는 행정인턴 사업이 대학생에게 직무 경험과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공공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상반기 자동차세 47억원 부과

전산망 개편으로 납기일 연장

정읍시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상반기 자동차세 4만 3000여 건, 총 47억여 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된 상반기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당초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방세 전산망이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납부 마감일을 7월 3일 금요일까지 연장했다.

납부 고지서는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나 거주지로 우편 송달될 예정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시민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정읍시청 세정과를 방문해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자 여러 결제 방식을 지원한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창구는 물론, 현금인출기(ATM/CD)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위택스(인터넷 웹사이트), 전자납부(지모), 무인 공과금 납부기,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다.

외국인 납세자를 배려한 조치로 외국어로 번역된 지방세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해 발송함으로써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특히 자동차 세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가 계속 미뤄지면 차량 압류나 변호관 영치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자동차세는 시의 지주재원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소중하게 쓰인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벼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 추진

고품질 쌀 생산 돕는다

익산시가 농업인 경영비 절감과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제약제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총사업비 7억 6,500만 원을 투입해 '벼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벼 재배농가에 ha당 5만 원 상당의 방제약제 교환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환권을 활용해 희망하는 지역농협이나 농약사에서 방제약제를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은 살균제와 살충제 각각 30여 종 가운데

가격과 방제 효과 등을 고려해 필요한 약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살균제는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등 주요 병해 예방에 활용된다. 살충제는 멸구류와 나방류, 노린재류, 응애류 등 벼 생육에 피해를 주는 주요 해충 방제에 사용된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31억 4,400만 원 규모의 방제약제를 지원하며, 벼 병해충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생산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병해충은 발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이 기간 내 신청해 적기에 방제하고 안정적인 영농에 도움을 받을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의료원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건강 불평등 해소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은 '어촌형 의료취약지역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선유3구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는 18일에는 선유1구를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지리적 접근성 제한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산시 선유 1·2·3구와 정자도, 관리도 지역 주민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군산의료원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구성해 현장에서 무료 방한 진료 및 침 치료료 실시했다.

검진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거나 추가 관리가 필요한 노인은 군산의료원 내 만성질환센터 환자로 등록해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하며, 합병증 예방 검사비 지원 안내 및 지역사회 보건교사의 자원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조준필 원장은 "도시 지역은 높은 고령화율에 비해 지리적 제약으로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선제적 건강 돌봄 서비스를 통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 고창군, 951억 규모 ESS 제조공장 유치

## 신활력산단에 (주)디에스시동탄 신설... 지역 고용 확대 기대

전북 고창군은 고창신활력산단내에 951억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ESS) 제조공장이 신설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희선 (주)디에스시동탄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디에스시동탄은 자동차 시트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온 중견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위한 기술과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ESS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일원 고창신활력산단내 내 부지 5만6637.1㎡에 공장을 신축하는 신설투자다. 총 투자금액 951억원은 토지매입 51억원, 공장건설 300억원, 기계장비 600억원으로 구성된다. (주)디에스시동탄은 이달중 토지매입과 착공을 시작으로 10월 공장등록과 사업계시를 계획중이다. 2028년 이후 연간 약 975억원 규모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고창지역에 75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사무·영업 27명, 생산 48명이 단계적으로 채용되며, 지역 고용 확대와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SS는 전력 저장과 안정적 전력공급에

활용되는 핵심 장치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데이터센터 증가·산업 전반의 전기화 흐름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번 투자는 고창신활력산단내의 미래산업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이번 투자를 통해 지방세수 증대, 지역 내 소비 확대,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디에스시동탄의 투자는 고창신활력산단내 미래 제조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이 계획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해양수산분야 국비 반영 건의

## 권익현 군수, 해양수산부 방문... 현안사업 설명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지난 11일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하며 해양수산분야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권익현 부안군수,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방문해 현안사업 설명 <사진=부안군>

건의의 주요 현안사업은 △연안 여객선 운임 지원 제도 개선 (10억원) △격포항 해수 취수시설 정비 공사 (40억원) △격포 여객선터미널 리모델링 (20억원)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 사업 (40억원) △공항마리나항만 사업 계획 승인 건의로 총 5개 사업이다. 특히 '연안 여객선 운임 지원 제도 개선'은 불합리한 국고보조율 기준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는 국비 지원액 확대와 기존 섬주민 천원요금제 지원사업과 일반인 여객선 운임 지원의 국비사업 전환을 건의해 해양수산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노후화된 시설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격포 여객선터미널'에 대해서도 이용자 불편 심화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사업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안정적인 양질의 해수 공급으로 격포항 인근 상인들의 영업 지장을 해소하기 위한 '격포항 해수 취수

시설 정비 공사'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또한 권익현 부안군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시군구 연구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모사업에서 '부안 젓갈 기반 K-소스 산업 고도화 및 기업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예비선정된 성과를 이뤘으며 남은 기간 동안 최종선정까지 차질없이 준비해 부안의 전통 젓갈이 글로벌 K-푸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관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신제품 개발 지원 △품질인증 △제조 공정 개선 △공공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온·오프라인 판

로 확대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제품 개발부터 생산, 마케팅, 유통에 이르는 전 주기적 맞춤형 지원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젓갈 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농어촌 기본 도시 실현인 '부안형 신바람·햇빛소득 시대'로 도약해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활력 넘치는 부안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부안=은봉기 기자

# '2026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성료

## 상반기 축제 대미 장식 체류형 관광 도시 도약

푸르름이 절여가는 6월, 모악산의 싱그러움 자연 속에서 열린 '2026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이 음악을 통한 특별한 휴식과 즐거움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모악산 잔디광장 특설무대 일원에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모악의 녹음, 음악으로 물들이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 공연과 관광객들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먼저 무대에서는 1일차(13일) 감성 발라드 케이윌과 가비엔제이, 2일차(14일) 청량한 매력의 브브걸과 제니스 등 화려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펼쳐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으며,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아우르며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공식 SNS 채널과 연계한 현장 팔로우 이벤트와 다채로운 스태프 투어(금산사 방문 인증, 지역 농특산물 구매

인증, 모악산 황톳길 걷기 체험 인증 등)를 진행해 축제 참여 재미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정성주 시장은 "김제시 상반기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이번 뮤직페스티벌은 단순한 음악 행사를 넘어 자연과 시민 참여가 어우러진 복합형 지역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앞으로 김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문화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군, 고유가 지원금 소비촉진 캠페인

##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적극 안내

부안군은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비촉진 캠페인과 읍·면 찾아가는 신청 홍보를 병행 추진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2일 부안상생시장에서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장에서

진행 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6월 10~14일)와 연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역 내 사용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제공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적극 안내하며 전통시장 이용과 가치소비 실천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군은 손코팩 등을

활용해 소비촉진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장 상인들과 함께 현장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김연희 지역경제과장은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소비로 연결되도록 소비촉진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찾아가는 신청 홍보를 통해 미신청자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전통시장 이용 확대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 김제시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선정

### 내달 3일까지 수강생 모집

김제시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도서관은 오는 8월 5일부터 '나의 고향 나의 김제-아리랑의 땅에서 새만금의 바다까지'를 주제로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 주민에게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인문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일상 속 인문 가치를 확산하고 주민들의 인문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문화유산의 인문학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탐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문화유산과 K-Art'를 연계해 살펴

보기를 통해 서정적 시각에서 삶과 현상을 바라보고, 지역의 역사와 '나'의 삶을 연결하는 철학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강연과 특강, 현장 탐방 등 총 11회차로 알차게 구성된다. 김제 출신 지역 작가인 김영자 작가의 '김제의 현대적 이해와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강연을 이끌며, 전문 분야 강사진의 특강도 2회 진행된다. 아울러 김제의 문화유산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2회의 현장 탐방도 마련돼 참여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지역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착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생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이며, 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제=은봉기 기자



<사진=고창군>

## 고창군 '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사업' 추진

고창군이 지난 11일 '2026년 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클린농촌반원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는 농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읍·면별로 구성된 클린농촌반원 농로, 하천변, 마을 주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공동집하장 및 거점수거장소로 운반하는 등

농촌 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 추진에 앞서 클린농촌반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쓰레기 수거 방법, 활동 시 준수 사항 등을 안내했다. 클린농촌반원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농촌지역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수거와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 용기중기문화센터, AI배움터 거점 새단장

부안군은 용기중기문화센터가 주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AI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로 새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4층 정보화실은 AI디지털배움터 교육장으로 조성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AI 기초교육부터 스마트폰 활용, 생활 속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인공지능 앱 활용 등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교육장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 과정부터 생활 밀착형 활용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용기중기문화센터 1층 로비에는 AI 디지털 체험존이 마련됐다. 체험존에는 교육용 키오스크, 인바디, 닌텐도 스포츠존, AI 로봇강아지, VR 헤드셋, 유비오맥과 등 10여 종의 디지털 기기가 구비돼 있다. AI디지털배움터에서의 교육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체험은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 체험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안=은봉기 기자

수 있도록 기초 과정부터 생활 밀착형 활용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용기중기문화센터 1층 로비에는 AI 디지털 체험존이 마련됐다. 체험존에는 교육용 키오스크, 인바디, 닌텐도 스포츠존, AI 로봇강아지, VR 헤드셋, 유비오맥과 등 10여 종의 디지털 기기가 구비돼 있다. AI디지털배움터에서의 교육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체험은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 체험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안=은봉기 기자

## 김제시, 어린이 승강장 제막식 개최

김제시는 지난 12일, 유니세프 아동친화정책의 일환으로 김제김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어린이 승강장 제막식을 개최하고,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산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 승강장 개소를 축하했으며,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 속에서 행사가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어린이 승강장은 하교 후 부모 차량이나 학원 차량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대기 공간을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기후 환경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친화 안전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 어린이·청소년회 정책발굴 아카데미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신규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4천만 원을 확보했다. 또한, 완주군과 나주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 여건에 맞는 '김제형 어린이 안전모형'로 구현됐다. 김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어린이 승강장은 10.4㎡ 규모로 냉·난방기, 운열 의자, 홍보 스크린, 무선충전기 등을 갖추고 있다. 또 IoT 기반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해 어린이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특히 기후 위기 대응 기능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아동친화 안전시설로서 어린이와 학부모의 통학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아동친화 정책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군, 30일까지 여름마실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진행

부안군은 여름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를 위해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여름마실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부안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포인트를 전액 사용한 기부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쿠폰 1만 원권을 선착순 200명까지 증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군에 고향사랑기부한 뒤 답례품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면 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급 대상자에게는 7월 10일까지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을 맞아 부안의 정성이 담긴 답례품과 함께 작은 혜택을 더해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부안 고향사랑기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풍년기원제 행사 성료

김제시는 지난 12일, 백구면 월봉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풍년기원제 및 스마트팜 온실 체험' 행사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의장, 강대연 농협김제시지부장, 김중래 백구면 주민자치위원장, 송석봉 백구면 이장협의회 회장, 이혜숙 백구면 생활개선회 회장, 그리고 부유·난산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올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손모내기·스마트팜 온실 체험 활동을 통해 서로 화합하는 시간이 됐다.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지난 2021년 11월 준공 이후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 4개 시설이 연계·집적화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 지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온실 임대, 신종작물 및 ICT기재 실증·상용화 지원, 빅데이터센터 생육·환경정보 등 수집·분석, 농가지원 시스템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대한민국 첨단농업 및 청년농의 미래를 이끌어갈 거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농이 유망돼 농촌에 활력이 생기고, 농생명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 아산면 행정복지센터 6·25 참전유공자 가정 위문

고창군 아산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정재택)가 지난 10일 관내 6·25 참전유공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재택 아산면장은 참전유공자 가정을 찾아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에 고개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위문품을 전달하며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했다. 방문을 받은 6·25 참전유공자는 "잊지 않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찾아와 참전의 명예를 높여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줘 가슴이 뭉클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재택 아산면장은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산면 행정복지센터 차원의 사회적 예우와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완주군의회, 제9대 의회 4년 여정 마무리

## 12일 제300회 임시회 폐회 유익의 의장 10만 완주 성과 회고 "통합 저지는 군민 의지의 결과"

완주군의회(의장 유익의)가 지난 12일 제300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모든 공식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유익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도 '10만 완주 시대'를 열어 준 완주군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 의장은 먼저 "지난 4년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모두의 염원이었던 10만 완주 시대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최대 규모 산단의 전진기지인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 단계로 이끈 눈부신 시간을 보았다"고 회고했다.

또한, 문화선도산단 사업 등 지역의 역사와 삶을 엮어내는 새로운 시도들

이 완주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반기 의회 출범 당시 직면했던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을 언급하며, "완주 사수의 임무를 맡은 의회의 유일한 좌표이자 원칙은 오직 '완주군민'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완주는 1997년부터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통합 시도를 무려 네 번이나 막아낸 위대한 공동체"라며, "한 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다는 성공의 DNA가 완주의 민주주의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군민들의 결속력에 경의를 표했다.

다만, 비봉 보은매립장 등 폐기물 문제와 축산 악취, 송전선로 등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 과제들과 인구 감소, 지방재정 위기, 생성형 AI 시대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 등 향후 제10대 의회와 집행부가 마주할 현실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짚었다.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향해서는 "완주군민의 일상과 행



유익의 의장 <사진=완주군의회>

복이 공직자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 있다"며, "그 막중한 책임을 영광과 자부심으로 삼아 흔들림 없는 군정을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회를 지탱해 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유익의 의장은 "제9대 의회는 오늘로 막을 내리지만, 완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완주의 빛나는 미래를 항상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하며 제300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에어로케이, 글로벌 관광객 유치 '맞손'

## 국제노선 연계 관광 활성화 순창장류축제 해외홍보 강화

순창군은 지난 1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발효관광재단, 에어로케이와 함께 '에어로케이 아시아노선 연계 외래관광객 전북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일본, 중화권,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제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에어로케이의 항공 네트워크와 전북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외래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광희 순창군부군수, 선윤숙 순창발효관광재단 대표, 채정훈 에어로케이 영업운송본부장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협약기관은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에비 글로벌축제인 제21회 순창장류축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기획 및 협력 △주요 취항 국가 대상 전북관광상품 및 순창장류축제 홍보 지원 △항공권 등을 할



<사진=순창군>

용한 외래관광객 유치 이벤트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제21회 순창장류축제'의 해외 홍보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순창군은 에어로케이의 국제노선을 활용해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취항 국가를 대상으로 순창장류축제 홍보를 강화하고, 전북 관광상품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광희 순창부군수는 "이번 협약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예비 글로벌축제인 순창장류축제가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1회 순창장류축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순창전통통고추장민속마을과 순창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되며, 장류와 발효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 주생면 '생생마을' 2관왕...공동체 저력 입증

## '농촌환경개선' 분야 최우수상 제천마을 '마을만들기' 장려상

남원시가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주최 '제13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농촌환경개선 최우수상(주생면)과 마을만들기 분야 장려상(주생면 제천마을)을 동시에 수상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저력을 입증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구현을 위한 생생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장으로,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환경개선(클린농촌) 분야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주생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주민위원회(대표 이상봉)는 농촌 고령화와 쓰레기 무단방치, 불법 소각 등 고질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깨끗하고 순환하는 주생면'이라는 비전 아래, 18개 전 마을의 쓰레기 배출 실태조사, 마을별 자원순환 마을지킴이 지정, 주민 교육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큰 주목을 받았다.

마을만들기 분야 장려상을 수상한 주생면 제천마을(이장 나정주)은 지난해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회 참가를 주도하며 '함께 나누는 문화'를 확산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농촌환경개선(클린농촌)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주생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주민위원회는 오는 9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제13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전국 본선에 전북 대표로 출전한다. 위원회는 전국 시·군 마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남원 농촌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알릴 예정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 '봉동생강 공동체' 서두마을, 道 콘테스트 최우수상

## 완주 봉동읍 '생생마을' 최우수 생강 활용 공동체 모델 호평

완주군 봉동읍 서두마을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제13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촌 공동체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있는 농촌' 실현을 목표

로 마을 공동체의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장으로, 지난 2014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서두마을은 이번 콘테스트에서 생강을 활용한 공동체 소득 창출을 주제로 발표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히, 고령화되는 농촌 현실 속에서도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와 끈끈한 결속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두마을은 오는 9월 열리는 전국 행

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무대에서 전북을 대표해 또 한 번의 도전에 나선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서두마을 주민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서두마을의 우수 사례가 완주군 전역으로 확산돼 '모두가 살기 좋은 완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농촌 활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문화관광재단, '모두의 인문학' 공모 선정

## 전국 101개 기관 중 최종 선정 완주형 문화브랜드 확장 추진

완주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모두의 인문학' 운영기관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101개 기관·단체가 참여했으며, 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운영기관이 선정됐다.

완주문화관광재단은 '완주, 사람을 읽고 삶을 잇다'를 주제로 주민의 삶과 기억, 감정과 경험을 지역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사업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의 삶에서 출발한 질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생활권 문화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산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선정 과정에서

주목받았다.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주민을 대상으로 총 80회 규모 운영하며 약 2,000명의 주민 참여를 목표로 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완주 인문학 마실 △완주 예코 패밀리 △완주 뷰파인더 △완주 웹툰 아틀리에 △완주 감정 매핑 △완주 사운드 스퀘어 △완주 스케치북 △완주 목소리 극장 △나의 완주, 나의 역사 △완주 로컬 큐레이션 등 10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재단은 주민의 삶을 여행으로 재해석한 인문학 투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지속가능한 인문사업으로 정착시키고, 축적된 인문 자산을 완주만의 지역 브랜드와 체류형 문화관광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양중모 남원시장 당선인, 청렴도 향상 방안 논의

## 12일 행정복지국 업무보고 청취 공정·투명한 조직문화 주문

양중모 남원시장 당선인은 지난 12일 행정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혁신과 청렴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시민소통 행정, 인사·조직 운영, 청렴도 향상 대책, 주민복지 서비스, 인구정책과 함께 남원다움관 조성 및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 남원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양중모 당선인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민의 신뢰"라며 "공정하



<사진=남원시>

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록은 도시의 역사이자 미래세대에 남겨줄 소중한 자산"이라며 "남원다움관을 중심으로 남원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 남원만의 정체성을 미래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 완주군, 퀵스타트 연계 '일자리 매칭데이' 성과

## DH테크노밸리·골드맨 현장 면접 11명 선별 교육 거쳐 채용 연계

완주군은 지역 내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DH테크노밸리지점에서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연계 일자리 매칭데이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사)전북산학융합원(원장 강승구)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참여기업인 ㈜DH테크노밸리점과 ㈜골드맨이 직접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채용분야는 △품질관리△소재관리 △설비보전△회계계정으로 기업 경영과 생산 현장에 필수적인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됐다.

이날 현장면접에는 총 30명의 구직자가 참여했으며, 이 중 11명이 합격해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합격자들은 향후 기업 및



<사진=완주군>

중형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거쳐 정규 채용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완주군은 지난 5월 14일 공모 선정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아이씨엔씨(주) 30명, 한국차체(주) 9명 등 총 39명의 채용 확약을 바탕으로 기업 중심의 직무 교육과 현장실습을 운영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투자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주요도로에 기초번호판 261개 확충

순창군이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소정보시스템 확충에 본격 나선다.

군은 통행량이 많은 곡순로, 옥순로, 인덕로, 장류로를 대상으로 '2026년 기초번호판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물이 없는 도로명 구간이나 위치 찾기가 취약한 지역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순창군이 '2025년

주소정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확보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활용해 추진된다. 군은 해당 예산으로 앞서 도로명판 51개소를 확충했으며, 이번 기초번호판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4월부터 순창군 일원의 주소정보시스템 필요 대상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군은 이번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총 261개소에 기초번호판을 신규설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0월까지 신청 접수

순창군이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오는 10월까지 수시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를 맞아 추진되는 것으로,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 철거와 개량을 지원해 주민들의 건강 불안을 해소하고 마을 경관을 대폭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주택 324동, 비주택(창고, 축사 등) 30동, 지붕개량(주택) 48동 등 총 400여 동을 지원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가구도 조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은 △주택 철거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철거 면적 200㎡ 초과시 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 원 △지붕개량은 일반가구 500만 원, 취약계층 최대 1,000만 원이다. 지원금은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해야 한다.

올해 사업은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안전하게 진행된다.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금은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신청자가 임의로 다른 업체와 계약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액 자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10월 말까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건축물 소유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063-650-17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 충북 교육관계자들, 완주군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견학

충청북도교사인증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교장, 간사,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70명이 최근 완주미래행복센터 방문해 지역소멸 대응 및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따른 지역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폐교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및 교육·돌봄 거점 조성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견학에 참석한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은 시설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폐교를 지역의 교육과 돌봄, 문화 기능이 융합된 공간으로 재생한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 맞춤형 정책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견학에 참석한 관계자는 "완주군이 나서서 폐교를 지역의 거점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미래행복센터는 폐교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및 교육·돌봄 통합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행정,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통합적인 교육·돌봄·문화 모델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교육 시민 성인지 감수성 제고

남원시는 지난 11일 시청 지하 회의실에서 일반시민, 시민참여단, 여성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남원 조성'을 위한 젠더 관점 역량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불평등을 인식·개선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원광대학교 조경옥 교수는 '젠더 관점으로 바라보는 여성친화도시의 이해와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강의를 펼쳤다. 조 교수는 다양한 국내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살기 좋은 포용적 도시를 만드는 과정임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임실군, 오는 16일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임실군은 오는 16 군청 광장에서 3분기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인한 중증 수혈환자 증가와 헌혈자 감소에 따라 혈액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안정적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공직사회에 사랑 나눔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 군민 등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매년 분기별로 꾸준히 헌혈 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도 1.2분기 2회에 걸쳐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실군보건의료원장(김대곤)은 "이번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혈액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혈액의 양이 부족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다고 들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및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장수읍지사협, 직접 만든 카스테라 나눔

장수군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점욱)는 지난 11일 장수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제과제빵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직접 만든 카스테라를 취약계층 세대와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내 복지자원과 체험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제과제빵 체험에 직접 참여해 정성껏 카스테라를 만들었으며, 완성된 빵은 관내 취약계층 세대와 복지시설에 전달해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 마이산 여행센터, '마이키즈카페'로 새 단장

진안군 마이산 북부에 위치한 '마이산 여행센터'가 어린이 중심의 놀이공간인 '마이키즈카페'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 단장을 거쳐 운영을 시작했다.

사단법인 진안군관광협회는 '진안을 플레이하다! 마이키즈 놀이터!'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 단위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

새롭게 문을 연 마이키즈카페는 진안군의 친근한 대표 캐릭터 '빠망이'를 전면에 내세웠다. 카페 내부 곳곳에 빠망이 캐릭터 랩핑 작업을 진행해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별도의 빠망이 팝업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아이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포토존을 제공한다.

현재 시설 내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과 체험형 콘텐츠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공간'도 막바지 준비를 거쳐 6월 중으로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진안 관내 거주 방문객은 '무료'입장이며, 관외 방문객은 5,000원의 이용료를 결제하면 이를 '진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0% 전액 교환 가능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작

민선 9기 공약 이행 7월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장수군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일부터 장수군 보건의료원 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아청소년과 개설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인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 해소'와 '총출산 복지·교육'으로 만드는 행복한 장수'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장수군은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사 복무 종료 이후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관내에 전

문 의료기관이 없어 보호자들이 자녀 진료를 위해 인근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남원의료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주 1회 정기적으로 파견받아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마련했다.

진료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수군보건의료원에서 운영되며, 일반 외래진료를 비롯해 △성장·발달 상담 △영유아 건강관리 △소아 만성질환 상담 △예방접종 상담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군은 7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도 운영하여 일반 진료와 건강검진, 성장 발달

관리까지 연계한 체계적인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번 개설을 통해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아동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훈식 군수는 "소아청소년과 진료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총출산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아이 키우기 좋은 장수군을 만들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 그라폰도·메디오폰도 대회 성료

선수 1천5백여명 참가 한국최대길거리경주호평

2026 무주 그라폰도·메디오폰도 대회가 지난 13일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가족, 대회 관계자 등 2천7백여 명이 무주를 찾아 성황을 이뤘다.

9백여 명의 그라폰도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8시 무주예체문화관 광장을 출발해 부남면, 안성면, 적상면, 설천면, 무풍면 그리고 설천면, 적상면을 거쳐 무주국민체육센터로 돌아오는 124.5km 구간을 달렸

다. 6백여 명의 메디오폰도 참가자들은 적상면 하조사거리에서 그라폰도 참가자들과 분리돼 적상면 양수발전소 홍보관과 초리마을, 산성교를 지나 무주국민체육센터까지 총 70.5km 구간을 달렸다. 참가 선수들은 "올해도 자전거 타기에 최적인 무주 곳곳을 달리며 그간 갖고있던 실력을 점검하고 선수끼리 정보도 나누며 친목을 다질 수 있어 좋았다"라며 "무주 대회는 자전거인들 사이에선 인지도가 높는데 대회 운영이나 코스 여건 등 모든 면에서 정말 이롭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최의호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사과 농가 찾아 현황 살피

장수사과 경쟁력 강화 모색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1일 사과 농가와 사과시험장을 방문해 사과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스마트과원, 신품종 시험포, 다목적 햇빛차단망 등 미래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설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사과 주요 생육시기에 맞아 장수사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점검하고, 스마트농업과 신품종 육성 등 미래 과수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훈식 군수는 먼저 사과시험장을 찾아 미래형 다축 스마트과원과 신품종 재배 실증 현황을 점검했다. 사과시험장은 품종 비교전시포를 비롯해 밀식·다축 재배 실증포, 스마트

과원, 무병묘 생산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사과 재배 농가를 방문해 사과 비대 상태와 착과 상황, 병해충 발생 여부 등 생육 전반을 살피고 농업인들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신품종 주산지 현장연구 과제가 추진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지플, 만홍, 골든볼 등 다양한 신품종 시험재배 현황을 확인하고, 장수지역 적응성과 시장성 확보를 위한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다목적 햇빛차단망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여름철 고온기 과실 품질 향상 효과를 살펴보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재배기술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아동복지시설 현장 점검

임실군은 오는 19일까지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안전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하절기 재난대응 대책, △책임보험 가입, △소방·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산불대피대책, △동절기 점검결과 모니터링 등을 점검한다. 현장 점검으로는 △시설운

영관리, △종사자관리, △종사자복지, △아동관리, △운영관리, △회계관리 6개 분야 20개 항목을 점검한다.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요구, 부적정 운영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우수등급 '정조준'

인구활력추진단 회의 개최

진안군은 지난 11일 군청 강당에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진안군 인구활력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안)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평가 대응 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부군수를 비롯한 국장, 실·과·소장, 읍·면장 등 37명이 참석해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군이 수립 중인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안)의 주요 사업 방향과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투자계획(안)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6개 전략, 2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담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재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활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진안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실행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우수·양호·보통 등 4개 등급으로 차등 배분되며, 진안군은 현재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12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투자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최종 배분 규모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이 이뤄지는 오는 10월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고향사랑 지정기부 조기 마감

유기동물 입양지원 1천만원 양궁꿈나무 육성지원 5천만원 목표 모금액 달성

임실군이 올해 처음 추진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들이 축제를 연계한 전국적인 홍보에 힘입어 목표한 모금액을 일찌감치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12일 군에 따르면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1호인 '고향사랑 동물사랑 유기동물 입양지원사업'과 2호인 '양궁꿈나무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 내 모금액을 모두 채웠다.

군은 지난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직접 공감하고 응원할 수 있는 지정 기부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왔다.

이번 1호와 2호 사업 모두 전국 각지 기부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목표 모금액을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고향사랑 동물사랑 유기동물 입양지원사업'은 임실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130여마리의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동물복지의 향상을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유기동물 입양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초 1천만원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으며, 약 한달만에 목표



임실군이 올해 처음 추진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들이 축제를 연계한 전국적인 홍보에 힘입어 목표한 모금액을 일찌감치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사진=임실군>

액을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모금된 기부금은 유기동물 입양가정에 이동장, 배변패드, 사료 등 약 20만 원 상당의 입양물품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입양 초기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궁꿈나무 육성지원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 사업은 지역 청소년 선수들의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체육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총 5천만원의 사업비 확보를 목표로 지정기부 특별이벤트와 함께 지난 5월 말 장미축제 기간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등 목표액 조기 달성에 주력했다. 모금된 기부금은 양궁꿈나무 선수들의 훈련 장비와 교육환경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선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대한민국 양궁을 이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정기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부자들이 지역발전에 직접 참여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 안성면 두문마을, 생생마을만들기 '최우수상'

제13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낙화놀이 계승·발전 노력 호평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무주군은 안성면 두문마을이 지난 10일 전북도청 공원에서 개최된 '제13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마을 만들기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한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마을 발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마을공동체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도내 시군을 대표하는 8개 우수마을이 '마을 만들기'와 '농촌 만들기', '농촌환경개선' 부문에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무주군 두문마을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무주안성낙화놀이'를 성공적으로 보존·계승하고, 이를 마을 관광과 주민 소득 창출로 연계·성공을 보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민원실 운영시간 연장

매주 목요일 오후 8시까지 운영 농번기 군민 불편 해소 민원서비스 접근성 향상

장수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민원 처리 편의를 위해 민원실 운영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연장 운영은 내달 2일까지 실시되며, 매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민원실 운영시간을 확대해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장 운영 기간 동안 제공되는 민원 서비스는 주민등록, 여권 발급,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명세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를 비롯해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건축 인·허가, 부동산, 마을경관 관련 업무 등이 다.

군은 영농활동으로 낮 시간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저녁 시간에도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해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군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중시간 민원실 운영과 병행해 민원서류 발급 공

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농사일로 바쁜 군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행정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남원 대산면, 사나래봉사단과 함께 '행복의 빵' 250개 전달**

남원시 대산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최성조)는 지난 9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빵 250여 개를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제빵 나눔 프로그램 '같이의 가치-함께하면 좋은 세상' 5회차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사)전북특별자치도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소속의 사나래봉사단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남원시 이백면 소재 허브 앤베이커리 제빵소에서 직접 빵을 만들고 정성껏 포장하였으며, 총 250개의 빵을 준비하였다. 대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기탁받은 빵을 운교마을 등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전달하여 장애의 벽을 넘어 상생의 가치를 일구어냈다.

특히 이번 나눔은 운교마을에 거주하는 한 지적장애인 봉사단원이 "내가 사는 마을에 직접 만든 빵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추진되어 훈훈함을 더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고창 상하면 농가주부모임, 취약계층에 물김치 전달**

고창군 상하면 농가주부모임(회장 주송월)이 지난 11일 사랑의 물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봉사에는 주송월 회장을 비롯한 회원 35명이 참여해 정성껏 담긴 물김치를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저소득층 등 200가구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주송월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월 상하면장은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최정복·조정희 부부, 한부모 가정에 성금 전달**

**아니소사이어터 44호로 활동 성금 500만원 지원**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북아니소사이어터 44호이자 김제시 3호 회원으로 활동 중인 최정복·조정희 부부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해 교월동에 따뜻한 나눔의 온기가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최근 배우자와 사별 후 상실감과 우울증이 심해 두 자녀를 홀로 돌보며 주거 문제와 생계의 어려움까지 감당하고 있는 교월동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두 명의 아이들과 삶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가족의 이야기에 두 부부는 망설임 없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지역사회 내에 귀감이 되고 있다.

최정복 씨는 "행정의 손길만으로는 닿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있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을 살피며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진심 어린 뜻을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최정복·조정희 부부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해 따뜻한 나눔의 온기가 번지고 있다 <사진=김제시>



**익산 마동-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세탁봉사 펼쳐**

익산시 마동에서 이웃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돕는 나눔의 손길이 펼쳐졌다.

마동은 지난 12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익산지구협의회(회장 유순희)와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이불세탁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거동이 불편해 대형 세탁물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의 위생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익산지구협의회 회원과 마동 통장 등 20여 명이 취약계층 약 20가정의 이불을 수거하고 세탁과 건조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이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는 등 정서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블루베리연구회, 5년째 블루베리 기탁**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 되길"**

정읍 지역 블루베리 재배 농가들로 구성된 정읍블루베리연구회(회장 나동균)가 지난 11일 직접 수확한 블루베리 40kg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영양이 풍부한 제철 과일을 제공해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건강 증진을 돕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의 나눔 행보는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해마다 소외된 이웃을 직접 찾아가는 기부 활동을 꾸준히 펼치면서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전달받은 과일을 정읍애육원과 장애인복지관에 각각 보낼 예정이다.

나동균 회장은 "우리 회원들이 정성껏 키운 블루베리가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과 건강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하면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주)주원컴퍼니, 완주군에 '미스트롯4' 티켓 400장 기탁**

(주)주원컴퍼니(대표 황주원)가 완주지역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미스트롯4 콘서트 티켓을 쾌적하며 또 한 번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11일 완주군은 군수실에서 유희태 완주군수와 (주)주원컴퍼니 황주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미스트롯4 전주 콘서트' 티켓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주)주원컴퍼니가 기탁한 물품은 13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미스트롯4 전주 콘서트' 티켓 400장으로, 5,280만 원 상당에 달한다.

황주원 대표의 완주군을 향한 문화 나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23년에도 (주)골든이엔엠을 통해 '레트로 슈퍼 콘서트' 티켓 200장(2,000만 원 상당)을 기탁하며 완주군 소외계층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 바 있다.

올해는 (주)주원컴퍼니로서 이전보다 두 배가 넘는 규모의 티켓을 후원하며 한층 더 깊어진 고향 사랑을 보여줬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 걷기 행사 개최**

완주군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11일 완주전통문화공원 황톳길 일원에서 지역 주민과 치매환자 및 가족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지역 주민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걷기 전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법을 배우고, 실버 음악을 활용한 치매예방 건강체조를 통해 신체 활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완주전통문화공원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 의지를 다졌다.

또한 치매퀴즈존 운영과 천연삼푸,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농촌일손돕기**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체육시설사업소 및 관광과 직원 관광과 소속 직원들은 지난 12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안면의 한 딸기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일손 돕기는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일손 돕기에 참여한 문화

체육시설사업소 및 관광과 직원 20여명은 이른 아침부터 보안면 딸기 농가에 모여 방울뽕을 흘렸다. 직원들은 딸기 묘목 제거 및 주변 환경 정리 작업을 꼼꼼하게 수행했다.

직원들은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업에 필요한 개인 도구와 식수, 간식 등을 사전에 직접 준비하여 방문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부안=온봉기 기자

**우리 함께 해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회용컵,빨대 no!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



비닐봉투no!장바구니ok!



세탁비닐no!



일회용 수자, 포크 no!

〈一事一言〉



승리의 도취인가, 도민의 명령인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민선 9기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이끌 새로운 도지사 시장·군수, 그리고 교육감이 선출됐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주민들은 투표표를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맡길 대표를 선택했고, 당선인들은 그 선택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해묵은 병폐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당선인들이 스스로를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을 '일꾼'이 아닌, 전쟁에서 승리한 '개신장군'이나 '정령군'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본보 12일자 1면에 실린 두 기사는 이러한 권력의 오만과 모순을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다. 첫째는 이른바 '내란몰이' 식 정치 지형 속에서 기득권 쟁기에 혈안이 된 '윤(尹) 인사 발탁' 기사요, 둘째는 전북 교육의 수장으로 임명된 천호성 교육감 당선인 인수위가 도교육청 본청을 사실상 점령했다는 기사다. 이 두 흐름은 중앙과 지방이라는 무대의 차이만 있을 뿐, 권력을 잡은 자들이 보여주는 '승자독식'과 '정령군 행세'라는 본질에서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중앙 권력이 보여주는 영달 중심의 '윤 인사 발탁'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대표적 사례다. 반대파를 몰아세우고 자기 사람 심기에만 급급한 정치는 결국 민생 파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러한 중앙의 구태를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전북의 당선인

들이 보여주는 행보 역시 이와 닮아있기 때문이다.

최근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 인수위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를 인수위원으로 내정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했다. 후보 시절 음주운전 전력이 배제를 공언했던 점을 고려하면 도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준 사례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인신 검증 부실과 도덕성 결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특정 인사 한 명의 과오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 기간에는 유권자 앞에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다가, 당선 이후에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내로남불' 태도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때 도민의 신뢰는 사정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오만함은 도지사 당선인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인수위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과거 전과자 영입 논란에 대해 "민주주의적 포용력"을 운운하며 두둔하는 모습은 도민의 눈높이를 한참 벗어난 처사다. 선거 과정에서 표를 모아준 공신이라 해서 법적·도덕적 흠결마저 덮고 가려는 태도야말로 개신장군의 비뚤어진 특권 의식과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북이 당면한 냉혹한 현실이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청년 유출, 산업구조 전환은 물론이고 전주·완주 통합 문제, 교육 혁신 등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금 당장 상황을 결코 해결책을 모색해도 부족한 판에, 권력의 주변부에서 벌써

부터 자리다툼과 지분 나누기 논란이 반복된다면 도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피로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역사는 승리에 취한 권력이 얼마나 쉽게 독단과 오만에 빠지는지를 수없이 증명해 왔다. 선거는 끝났지만 민심의 준엄한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당선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화려한 권한이 아니라, 그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이다.

도민들은 군림하는 개신장군을 뽑은 것이 아니다. 무너진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교육을 혁신하며, 전북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성실한 일꾼을 선택했을 뿐이다. 당선인들이 진정으로 민심에 보답하고자 한다면 당장 승리의 도취에서 벗어나야 한다. 화려한 축하연보다 낮은 자세의 경청이, 보은 성격의 농공행사보다 능력 중심의 투명 인사가, 진영의 논리보다 도민 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치의 본령은 군림이 아니라 봉사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지역 주민의 삶을 돌보는 '수탁자(受託者)'일 뿐, 도정과 교육청을 사유화할 권리를 부여받은 정령군이 아니다. 개신군 아래에서 나팔을 불던 오만한 장수들의 꼴이 어찌됐는지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낮고 겸손한 자세로 도민 앞에 엎드려 일할 준비를 하는 것만이, 자신들을 선택해 준 위대한 민의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다.

사설

AI 건설·로봇 혁신센터, 현판보다 성과가 중요하다

전북대학교에 AI 건설·로봇 혁신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건설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에 전북이 새로운 산업 전환의 거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새만금 개발과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전북의 AI·로봇 산업 육성 전략과 맞물려 지역 미래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북에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센터와 혁신기관, 각종 지원사업이 출범했지만 정작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사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현판식과 업무협약은 상대했지만 몇 년이 지나면 존재감조차 희미해진 사업도 적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내용이다. 센터가 실제로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AI와 로봇 기술이 연구실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활용되고 기업의 매출과 투자로 이어질 때 비로소 혁신센터의 존재 이유가 증명된다.

더욱이 전북은 지금 산업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AI, 로봇, 수소, 데이터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번 혁신센터는 지역 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시련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성과 없는 조직은 또 하나의 행정적 지체에 불과하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비전이나 거창한 선언이 아니다. 몇 개 기업이 성장했고, 몇 명의 청년이 취업했으며, 얼마나 많은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용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다. AI 건설·로봇 혁신센터의 성공 여부는 현판식 당일 이 아니라 3년 후, 5년 후의 성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출범의 박수가 아니라 성과를 향한 냉정한 실천이다.

독자투고

노인학대 예방, 우리의 관심이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킵니다



매년 6월 15일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학대 문제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 학대는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위, 유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가정이나 보호시설 등 가까운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어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주변 어르신들

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학대 예방의 첫 걸음이다.

또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경찰(112)에 즉시 신고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 한 분 한 분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소중한 사회 구성원이다.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관계 기관, 그리고 시민 모두가 노인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어르신들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기를 기대해본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유서준

오늘의시

수선화에게 /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 길을 걸어갈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토요일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시인 약력 :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경희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첨성대'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로 각각 당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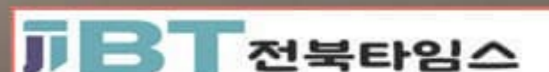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행인)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8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원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순창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당신의 하루, 전북타임스가 함께 시작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대표번호 -063)282-9601 팩스 063)282-9604





**제14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자연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접수기간**

**2026년 6월8일(월) ~ 7월9일(목)**

**주 제 :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

**공모 기간** 접수 기간 : 2026년 6월 8일~2026년 7월 9일

결과 발표 : 2026년 7월 13일

수상자 시상 : 2026년 9월 4일

**참가 자격** 전북도내 초등학생

**출품 형식** 8절지 도화지(B4 용지)

**출품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문의 사항** 이메일 : jbn8800@daum.net

전화 : (063)282-9601 / 010-7454-1559

대상(3명)	전라북도교육감상(1명) 전라북도의회장상(1명) 전라북도지사상(1명)		
최우수상(4명)	전주시장상(2명) 전주시의회장상(2명)		
우수상(20명)	(재)아시아분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장려상(50명)	(주)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	특별상(3명)	국회의원상

**주최, 주관: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 주)전북타임스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